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유일하신 그리스도 Ⅱ

(요 1:15-18)

이종윤 원로목사

3.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신 분

“은혜 위에 은혜라”(요 1:16)

‘은혜 위에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은혜의 무진장한 근원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린 아우터 카리토스’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은혜 말고 다른 것이 대신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은혜 받은 자 또 누가 있으리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은혜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요 1: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

‘왔다’는 말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두말할 것 없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율법은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생긴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로고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로고스’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 역사적 예수가 지금 시간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헤롯왕도 물었습니다. “내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인데 도대체 그 이는 누구냐”(눅 9:9). 예수가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에 “이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이처럼 모독하느냐 죄인을 용서하다니 용서는 하나님만 하는 것인데”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눅 5:21).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3:20, 신명기 4:12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에 ‘있다’는 말은 영어로 into 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말과 아주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

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그 틈 속에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드려야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③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기에 충분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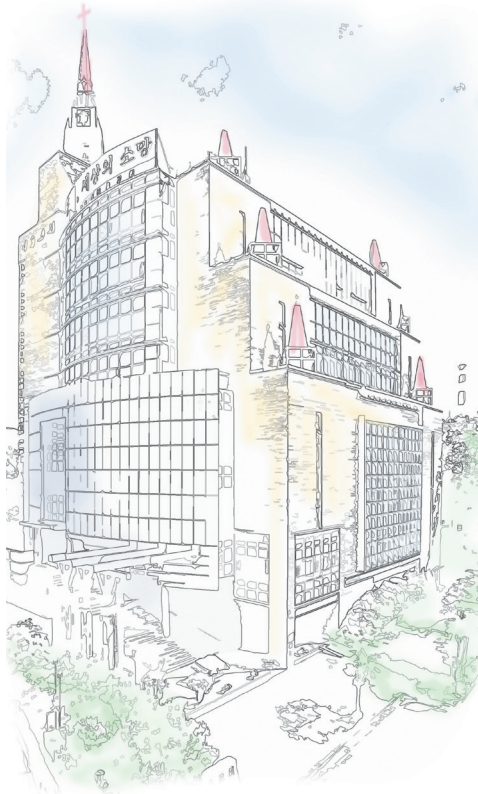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면 나를 대신해서 짐을 지실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에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④ 그분만이 우리의 대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답이 되십니다. 인간은 질문이고 물음이고 하나님은 대답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인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를 보아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나 과거의 모습은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소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미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사랑을 가득히 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 모든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2019 사명자대회 시작하다

10.6(주)-11.24(주) 50일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Revitalization)케 하옵소서!"

2019 사명자대회(위원장 차도훈 장로) 준비가 시작되었다.

서울교회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설립되었고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지향하며 달려왔다.

지금은 비록 서울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2019 사명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9 사명자대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 2019 사명자대회 조직 -

- 위 원 장 : 차도훈 장로
- 지도교역자 : 조원영 목사
- 차 장 : 백도환 집사
- 진행분과 : 김영희 집사 / 김웅기 집사 이경순 집사 임종현 집사
- 동원분과 : 최원석 집사 / 이민호 집사 장창수 집사 교구간사
- 기도분과 : 김승록 집사 / 홍창훈 집사 김광래 집사
- 교육분과 : 김혜언 집사 / 장윤기 집사 정완진 집사 교육부장
- 홍보분과 : 김규태 집사 / 정치은 집사 김애리 집사 유은경 집사 멀티미디어실
- 재정분과 : 안흥희 집사 / 김광민 집사
- 안내분과 : 황병석 집사 / 백승갑 집사 1·2·3부 안내위원
- 봉사분과 : 허 숙 권사 / 권사회
- 차량분과 : 김광태 집사 / 이강인 집사 안성현 집사 오윤걸 집사 차량부원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윤종현1 정춘혜 윤요섭·안재희 김애리 소망부 이관규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해마다 저희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 베델하우스의 넓은 잔디 위에서 호산나 대학 강사님이 진행하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으로 다 같이 웃으며 기쁜 시간을 보냈고 수련회에 참석한 12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념 촬영하는 것으로 이날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지만 마치고 나니 많이 미흡했음을 느낍니다. 부족하였던 점은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련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당회, 힘든 일들을 솔선수범해주신 스테반회, 주일 점심 준비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음식 준비에 최선을 다하신 권사회, 수련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오정수 장로님 가정 그리고 특별 찬조로 너덕함을 주신 모든 성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린신의 편안한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와 레크리에이션 강사까지 지원해 주신 호산나대학의 이동귀 부학장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멀리 고성에서 문어숙회를 보내주신 대진중앙교회 김춘기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들로 풍성하게 기획하고 묵묵히 준비해주신 소망부 부장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장로님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은혜 가운데 일일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안성관 집사



김광래 집사 (소망부 부감)

가을 냄새가 솔솔 나는 8월 마지막 토요일 소망부 수련회가 베델하우스에서 은혜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초창기부터 함께하여 현재 우리 교회 분쟁을 그 누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로하고자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소망부, 은빛찬양대, 살롬권사회, 사라전도회, 아브라함선교회 어르신들이 모여 예배 및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1시 전재홍 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된 경건회는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재판장들의 재판장」이란 제목으로 모든 재판은 세상 재판관이 아니라 재

판장의 재판장이 되시며 만국 만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이 개입하셔서 판단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 종결된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후 임상현 장로님께서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을 어르신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 식사 시간, 권사회에서 존경과 섬김의 마음으로 준비한 직화불고기, 호박샐러드, 메밀국수, 전, 과일 등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가지수로 열심히 준비한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촉박한 시간과 많지 않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으며, 또 그 맛은 얼마나 좋았던지 서울교회 권사님들 손은 마법의 손인 것 같습니다. 풍성한 식탁 아래 맛있게 드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되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마페시(Mapesi) 초등학교 급식장 건축현금을 하신 어느 장로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오신 기도편지의 일부입니다. 이로써 24번째 급식대상이 된 마페시 초등학교의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은 오는 9월 16일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 맛있는 영양식을 즐기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800여만 명 가운데 급식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고작 100만 명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말라위 초등학생들은 배고픔 가운데 수업에 들어가고 있어 안타깝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둘씩 급식 대상 학교가 늘어가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칸디와 카송구 두 곳의 교도소에 세워져 있는 영양식 공장이 정상 가동하여 나오는 음식으로 현재 급식 인원의 열 배가 넘는 40만 명의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부디 더 많은 후원이 답지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더 잘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빛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2017년부터 매년 7월 초순에 시행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 세미나가 금년도에도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지인 목사님 105분을 모시고 한국의 영남신학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금번 행사에서 “출애굽, 당시와 오늘의 말라위” (Exodus Then and

Now for Malawi)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모이는 재소자 새벽기도회는 날이 갈수록 기도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몽클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또한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전파를 타고 있는 ‘한국에서 온 사랑의 편지’ 방송선교 프로그램 역시 한주도 빠짐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어언 3년째로 접어들면서 말라위 라디오 방송 가운데 단연 인기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원어나더 프로그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의 노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로서 전도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깨끗한 물을 떠다 주고 무너진 벽이나 지붕을 새로 쌓아주거나 교체해 주는 일, 변소를 지어 주는 일 등을 지역 교회 성도들이 팍 흘려 수고하고 그 투입된 시간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미국이나 한국의 성도님들이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5년 마칸디 교도소를 출소한 후 바로 신학교에 가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말라카니(Lalakani)라는 지역에서 개척한 갓프리 마쿠페(Godfrey Makupe) 목사님께서 그동안 빌려 예배 보던 건물이 그나마 지난해 홍수로 무너져 버리게

되어 예배드릴 장소를 물색하며 제게 급히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고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교회와 원어나더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교회에서 소정의 건축현금을 보내 주셔서 일단 건축을 시작했지만 과연 완공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마침 미국 동부에서 저희 사역지를 방문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건축현장을 보시고 제게 봉투를 내미셨을 때 그 안에는 부족한 만큼의 금액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약 3주 후에는 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데모가 날이 갈수록 극렬해지고 심지어 일부는 폭도로 변하여 가게를 타는 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타이어 등으로 만든 불길 장애물 위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질주하여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00여 명의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와 사역에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맡겨진 의의 직분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김용진 환경예 선교사 올림



▲ 마페시 (Mapesi) 초등학교 급식장



▲ 원어나더 프로그램 일환인 지역민들을 위한 무너진 담장이나 지붕 쌓기, 변소만들기



▲ 말라카니 (Lalakani)지역 교회 건축



교회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권사회(회장 : 허 숙 권사)는 매 주일 식사 준비로 그렇게 바쁜 와중에 성도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떡국 떡이나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하고, 우리교회와 연계된 농촌교회에서 추천하는 산지 꿀, 딸기 잼 등을 판매하며 성도들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고하여 남은 수익금은 차곡차곡 모아 교회회복기금으로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국내산 재료를 엄선하여 담근 양배추김치와 각종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권사회는 주일 성수를 위하여 물품을 판매할 때 사전 예약과 계좌 이체로 대금을 받으며 매사 조심스럽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에스더전도회(회장 : 남태순 권사)는 성도들의 집에서 입지 않는 옷, 가방, 구두 등을 모아 상시로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지난 주일엔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나누는 행사를 하며 교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회의 어른들께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회복의 모범을 보이시는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어린 영·유아·유치부(지도 : 김은숙 전도사)까지 교회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었다. 지난 9월 1일 교회 앞마당 과랑천막은 영·유아·유치부의 작은 바자로 북적였다. 좁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교회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 집사님들의 헌신은 눈이 부시도록 예쁜 모습이었다. 이 날 바자 수익금은 예상보다 훨씬 웃돌아서 바자를 주최한 이들도 어안이 병병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은 이 작은 바자회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힘을 북돋우어 주시는 많은 성도분들의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년간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상처가 우리를 핏물처럼 지나갔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더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리라! 주님! 우리의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을 보옵소서.



- ◀ ①② 권사회에서 교회회복을 위해 판매한 반찬들
- ◀ ④⑤⑥ 영·유아·유치부의 교회회복 바자
- ◀ ③⑦ 에스더전도회의 송편나눔과 나눔의 집

9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9월 15일: 김봉배(통증의학) 김관섭(영상의학)
- 9월 22일: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9월 29일: 최용준(한방)

- 예약상담 :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동정

- 금주의 식사 : 명인식 집사 김정열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곤드레밥 무말랭이무침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온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교회회복을 위한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2.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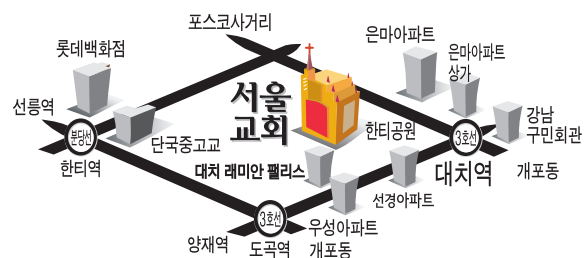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9월16일	월	암 1-9		욘 36-42	
9월17일	화	욘, 온 1-4		시 1-13	
9월18일	수	미 1-7		시 14-22	
9월19일	목	나 1-3, 합 1-3		시 23-35	
9월20일	금	슘 1-3, 학 1-2		시 36-44	
9월21일	토	속 1-4		시 45-55	
9월22일	주일	속 5-9		시 56-68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